

보도자료



배포일	2015. 7월 중	배포처	서울대학교 교내 매체
담당부서	서울대발전기금 기획팀	문의	변영현(02-871-1621)

제목: 서울대, 제2회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 수상

- 지난 6월 24일 한국경제신문 제2회 한국기금자산운용 대상 시상식에서 서울대학교(총장 성낙인)가 교육부장관상인 대상(대학기금 부문)을 수상했다.
- 한국경제신문 주최로 2014년부터 시작된 한국기금자산운용대상은 △대학 △보험 △공제회 총 3개 부문으로 나눠 심사한다. 이번 대학부문 심사는 전국 103개 대학을 대상으로 2014년도 기금운용위원회 의사결정체계와 자산배분 현황, 기금정보 제공노력 등 3개 부문, 13개 항목을 평가했다.
- 성낙인 총장은 한국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“대학 기금이 튼튼해야 그 수익으로 장학금을 늘리고 대학 발전을 위한 투자도 할 수 있다”며 “지금에 안주하지 않고 앞으로도 향후 저금리 상황을 이겨내기 위해 다양한 방법의 노력을 기울일 것”이라고 수상소감을 밝혔다.
- 서울대는 기금운용 조직 및 의사결정 체계가 우수하고 자산배분을 통해 기금의 실질 가치를 높이고 있다는 점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다. 서울대에 이어 대학부문 최우수상으로는 송실대, 우수상은 대구대가 차지했다. 또한 △한국교직원공제회(공제회 부문) △신한생명(생명보험 부문) △삼성화재(손해보험 부문)가 각 부문 대상을 수상했다.

사진설명: 좌로부터 황우여 부총리와 성낙인 총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.